주간케인

WEEKLY KANE

#05

해설지

[주간케인05] 21.06 특허권 지문 해설지

[주간케인]은 지문 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우리 한 문장, 문단씩 같이 봅시다. 수업이라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01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를 몇 가지 정해놓고 볼 겁니다.

1. 문장 단위의 미시적인 정보는 그때그때 정리합시다.
2. 맥을 못 잡겠다면, 문단이 끝났을 때 몇 초만이라도 투자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 끊임 없이 생각할 겁니다.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PIRAM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겁니다.)
3. 우린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는 머리 속에 박을 겁니다.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상식적인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시험장에선 뭐든지 해야죠. 제가 말한 게 배경지식으로 들어있지 않다면 아직 조금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어 독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은 늘게 돼있거든요. 정말 무리하지 않은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사실 독서를 하면서 배경지식은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떼내는 것은 모순이죠. 걱정 마세요. 정말 '상식' 수준입니다
5. 반응합시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반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하나, 번외로 추가합니다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02

제 수업의 특징은 지문 내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든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한계를 최대한 넓혀주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숨겨진 전제, 구조 등을 눈치챌 수 있게요. 운이 좋아야 가능하지만, 그 운이 실현되는 빈도가 꽤 많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실전적인 측면도 철저히 챙기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절대 쓸모 없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태도를 교정하면 보이는 측면에서만 다룰 겁니다. 평가원이 이해를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각 문단마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주관성이 내포된 답도 있으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철저히 독서 공부의 측면에서 쓰셔야 합니다.

목차

- 지문 톺아보기

#01

#02

#03

#04

- 거시적 지문 정리

1. 지문 전체 구조도 작성

2. 지문 위 구조 파악

3. 실전 반응 정리

~~4. 지문 필터링 ; 흘려읽기~~

- 문제 뜯어보기

● 지문 톺아보기 : 내용 설명 구조 설명 태도 설명

#01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의 독해 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위권은 문장의 모든 단어에 반응합니다.
"정보의 소유자. 발명이라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관청ㄴ의 심사를 받는대!
여기는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고 일정 기간 권리를..."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꼼꼼히 잘 독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위권은 다르게 독해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키워드를 먼저 파악합니다.**
특허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먼저 **심사**를 받아야겠죠. 가치가 있는 것만 권리를 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통과되면, **일정 기간**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허권이 화제임을 파악했고, 이 화제는 **심사**와 **일정 기간**이란 키워드를 위주로 설명이 됨을 알았다면, 그 사이의 설명들, 관청이 심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은 자동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어차피 이미 '특허권'이 뭔지는 대강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성한 두 키워드와 화제 사이의 설명들은 **지문 내용과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영업 비밀, 특허권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등. 납득할 수 있죠?
당연히 이는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하고요.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넵. **애플이나 삼성 떠올리시면 되겠죠?**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 삼성과 애플이 특허 문제로 맨날 싸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최근에는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답니다. 앞으로의 화제가 세금을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화제는 계속 잡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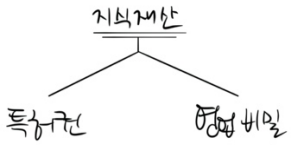
화제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의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
구조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세밀하고 치밀한 독해엔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문제를 풀 땐 읽으면서 기대한 만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진 인상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좀 이용해보자고요. 의식적으로. 물론, 새롭고 낯선 개념은 빡세게 읽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갖는 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부여받는 건 개연적이죠? 그럼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지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문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에 먼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은 비슷한 층위의 개념이 대조를 이룰 때 쓰는 부사입니다. 이 지문에선 '특허권'과 '영업비밀'이 비슷한 개념이란 걸 대충 알기 때문에 개념의 층위를 무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대조는 능동적으로!

시험장에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나요? 개념의 층위를 파악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식 재산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ICT 산업들.
해당 산업 내의 기업들은 트러블이 생기는데, 당연히 지식 재산에 관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지식 재산 보호 자체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지식은 재산이고, 재산은 보호 받아야 하니까요.
이 지문에선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주목하나 봅니다.
재산에도 세금을 걷잖아요? 해당 산업에선 지식이 곧 재산이므로 지식 재산에 수입을 부과하는데, 지식은 무형의 재산이므로 지식으로 거두는 수입에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쉬워서 별로 어렵지 않네요.
개념의 층위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외에는 특별히 요구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첫 문장에서 설명을 길게 썼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강조한 건, 결국 구조를 보는 것. 흐름을 잡는 것.
그 기본인, 화제를 잡는 것. 이 화제가 지문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것.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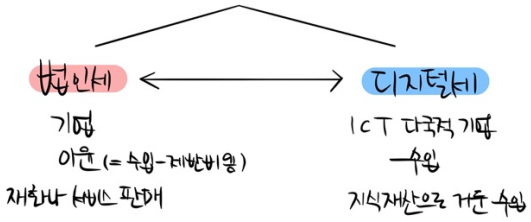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 아예 새로운 개념이에요. 디지털 기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
또, 왜 일부 국가일까. **일부와 대부분의 이항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일단 그냥 넘깁시다. **여기서 잡는 인상은 디지털세가 새로운 화제라는 것.**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01:04] : '지식 재산으로 거둔 수입에 대한'
첫 문단과의 유기적 연결.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법인세 감소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세금이 감소되는 건 (세금을 거두는 주체인)국가에게 문제가 되겠죠.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 법인세.
법인세는 수입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가져가는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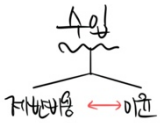
디지털세는 법인세의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 대조하여 어떤 점이 변화하였는지를 봐야해요. 아래의 구조도를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각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했냐는 거에요. 어떤 기업에, 어떻게 벌어들인 돈에 부과하는 건지는 솔직히 이름만 봐도 감이 와요. 하지만, '부과되는 대상'은 아니죠. **왜 수입과 이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겠어요?** 그것도 '디지털세를 설명한 후' 법인세를 설명할 때. 이게 사실 지문에서 주목하는 차이니까요!

국어 지문 내용은 사실 뻔해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합니다.(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대부분의 지문 전개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며 독해한다면, 추론이 추론이 아니게 됩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제반비용'에 대해 말할 게 있습니다.
제반비용은 처음 들어 보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뜻도 설명을 안해줬어요. 이는 지문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뇌피셜이 지문을 읽는 데는 충분하다는 걸 뜻해요? 이 상황이 "주간케인03 : 20.09 점유소유"에 나왔습니다. 저는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수입은 이윤 아니면 제반비용이겠네요.

개인적으로, 본 지문을 독파할 수 있는 태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2문단에서 법인세와 디지털세를 능동적으로 비교 대조 하였는가? 나머지 하나는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여기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독해했다면,
디지털세가 현명한 대안은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이 생겨야 해요. 기업이 꼼수를 부리는 원인을 제거해야지,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이 줄었다고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암시한 내용을 전개합니다.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익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가 화제이고 대책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도입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전에 쓰인 세금 제도는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세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니까, 매우 쉽죠. 왜 어려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도 명확해 보여요.
결국 불친절한 지문을 독파하는 비결은, 기본적인 독해 태도를 잘 체화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03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 기업이 꼼수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군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이윤을 몰아주면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은 이윤이 오히려 늘어나는군요.

저는 뭘 떠올렸냐면, 삼성 그룹을 떠올렸어요. 삼성 그룹에는 삼성 물산도 있고, 삼성 전자도 있고 삼성 생명도 있고 여러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결국 그룹의 이익이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읽읍시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과 부합하죠?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넵.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로열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낯섭니다. 그래도 특허 사용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한 기업 내에서 로열티가 이동하는 거니까 수입의 원천이 되는 건가 싶고, 그럼 이게 B회사의 수입이 줄어든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문장 볼까요?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윤의 정의가 뭐죠?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즉, 진짜 가져가는 수익이죠. A사에 로열티를 줌으로써 이 이윤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제반 비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고 지문에서 말은 안했지만, 일단 이렇게 보는 게 흐름상 합리적이죠?

여기서 본인이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추론했는가가 어떤 분들에겐 꽤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의 맥락에 따른 세부 정보에 대한 약간의 추론이 수월했다면 [03:01]과 연결하기 쉬운 예시였기에 학생의 독해력에 따라 받아들이는 난이도 차이가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당연한 말 같아요. 제대로 독해하지 못했다면.
왜 이걸 마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다고 보냐면요, **보조사 '도' 때문입니다.**
앞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자회사'를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본사, 즉 '모회사'를 보유한 상황.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러나' **흐름이 바뀐다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부사**이기에, **체크해줘야겠죠?**

그렇다면, 디지털세가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얘기인가요? 왜죠?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연히 세금을 걷는데 별로 기분이 좋진 않고, 게다가 디지털세는 이윤에서 수입으로, 법인세보다 징수 영역이 확장된 제도잖아요. 따라서 이들 기업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디지털세읠 도입에 방어적일 수밖에 없네요.

법인세가 문제가 되지만, ICT 기업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꼼수를 눈감아주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으로 표시해줬습니다.
대놓고 중요한 문장임을 알려주고 있죠?
게다가,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입니다.

지문 내용과 완전 부합하진 않는데,
지문을 읽는 데 이정도면 충분하죠? 정확한 예시를 들까 하다가, 실전에서 엄밀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떠올린 예시를 들었어요.

혹시 [03:01]을 독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건 순수한 독해력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에 집중하여 독해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딱히 어떤 태도 하나가 결여돼서 그렇다고 보긴 힘들어요.

[02:04]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한다.'
지문이 짧고 내용도 풀어 보면 크게 어렵지 없지만, 불친절하죠. 능동적으로 계속 끌고 와야 해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유튜브 수익이 고스란히 컨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제반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해당 영상에 음악이 쓰였다면 '수익' 중 일부는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솔직히 당연한 말 맞는데,
앞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볼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조사가 붙은 건 이유가 있죠. 여기서 '도'의 역할은 맥락상 의외인 곳에서도 통한다는 거니까...
마냥 당연하진 않게 받아들였나요?

법인세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 말해주고 있고 이건 ICT 기업의 본사를 가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아요. 그들의 꼼수로 인한 손해보다 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숨어있는 구조와 반응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불친절하다는 뜻이죠.
왜 어려워 했는지 해설을 쓰면서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면 볼 수록 새롭게 깨달을 지문이고, 저 또한 그렇네요.

#04 :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그쵸. 윗 문단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 문장 내에 반대의 두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반대의 경우를 읽을 땐 본인이 했던 생각과 부합하는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끊어서 보면 별거 없어요.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
지식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데, 새로운 지식을 만들 의욕이 생길까요? 따라서 진보가 정체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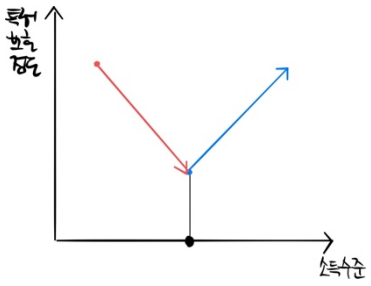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반대로, 너무 보호가 강하면 지식이 전파되기 힘들게 됩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지식을 **유인**하는 데 드는 **비용**
지식에 **접근**하는 데 드는 **비용**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라는데, 정확한 인과관계를 모르니 그런가보다 하면 됩니다**. 팩트만 잡고, 관계에 집중하세요!**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당연합니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반대의 두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과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인과관계의 결과만 말해줄 뿐, 둘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안나와있어요. 납득하기 힘듭니다.
시험장에서 이걸 명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돼요. 본인이 납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팩트만 잡고 넘어가야 할 것. 지금 이 문장은 후자입니다.

두 변수간 비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소득 수준의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니, 전 아래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며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네.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네요.
다시 흐름 잡고 마무리 합시다

일관된 지문 전개 방식이 보이시나요?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문단에서 말할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식 창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출'이 낯선 단어는 아닌데 말이죠. 좀 추상적이에요. 단순히 생각해서, 지식이 '**창**조돼서 **나오는**' 겁니다. 글의 맥락을 고려해서 생각해봐요.

기업의 비밀 연구소에선 이미 10년 뒤에 출시할 기술을 개발해 놓았다는 말이 있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해 진보는 많이 이루었지만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같은 조사를 두 개 연달아 쓰는 건 절대 좋은 글쓰기가 아니죠. 평가원이 논리 관계에만 신경을 쓴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제, 문장 성분(구조)을 파악하는 공부를 하는 건 비단 문법 문제를 위해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했고 왜 국가별로 입장이 다른지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독해 태도가 요구되는 문단을 아예 [A]로 묶어버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독해는 아무래도 [04:02]와 [04:05]인 것 같습니다. 정보량이 있고 인과관계도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납득하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떼어서 보면 문제될 게 없지만, 한 문장 내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위권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또 다른 특성으론, 정확한 흐름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대강 어떤 흐름이겠거니 잡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특이해요. 보통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를 문단 마지막에 언급했으면, 이 국가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 같은데, 이 **지문은 국가별 차이의 결과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경제학적 원리를 가져와요.

물론 별로 중요한 특징은 아닙니다. 수험생은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고비는 [04:02]와 [04:05]였습니다.
반대의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설명하는 인과관계가 나열되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경우 무의식적인 수동적 읽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팩트만 짚어내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굳이 제가 이 둘을 따로 떼어 보는 이유는 두 문장이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봅시다.

친절한 인과관계 - [04:02]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식 재산의 보호 정도에 따라 상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두 상황 모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저 흐름 따라 읽으시며 납득하면 됩니다.**
불친절한 인과관계 - [04:05]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소득의 수준에 따라 상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들은 위와 다르게 **정반대의 상황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두 변수 간의 관계만 명확히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불친절한 인과관계의 경우 배경지식을 써보는 것도 한번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저는 **[04:05]**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양, 그 후엔 질을 고려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발전한 역사를 보면 이와 부합하죠. 지식 재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입장을 보일 수 있겠다고 납득했습니다.

● **거시적 지문 정리**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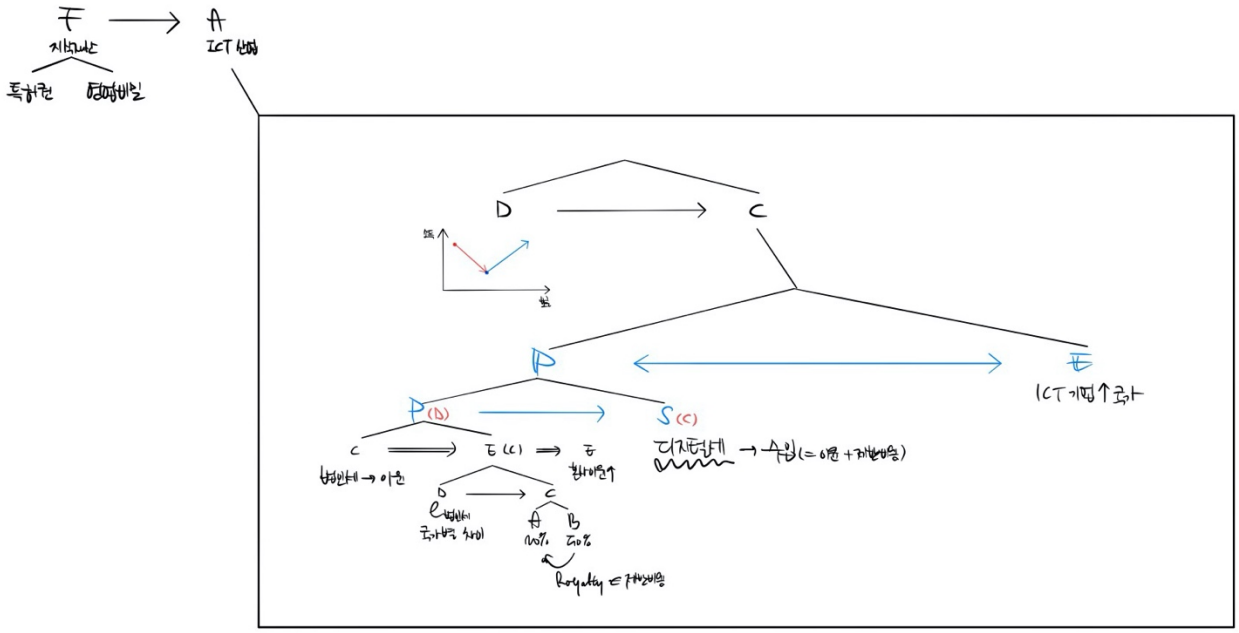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1. 지문 전체 구조도 작성

저는 이 지문에 대해 난이도 견해가 갈린 이유가 다양한 독해 태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설 보면 이해 다 가잖아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를 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불친절했죠. 각 문장에서 해야할 반응들을 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위권은 기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태도들을 체화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처리했던 거죠.

각 문단의 마지막이 다음 문단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가, 4문단에서 약간 의외의 내용이 전개됐어요. 하지만 19.11 우주론 지문에서 만유인력을 설명할 때만큼 쌩뚱맞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납득하고 독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A]로 묶었는데, 이를 32번에서 물어봤어요. 마지막 문단이니까 32번과 같이 해결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 지문의 구조도를 아래와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고, 구조도가 낯선 분은 [칼럼03]을 참고해 주세요!



구조도를 보면 지식 재산의 위치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 팔로워 중 한 분이 댓글로 '평가원이 연계를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EBS를 본 건 아니지만 일리 있습니다.

이번 구조도는 지문의 흐름에 주목하기보단, 정보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국 이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실제로 위의 구조도를 그리며 했던 생각입니다. 미시 정보와 거시 정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지문에서 학습한 점들 정리

_____ ➔	

GIST 해리케인